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행복청, 메타버스를 통한 시민 체험형 도시계획 구현

-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공간에 도시계획을 구현하는 시범사업 실시
- 체험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자주도형 도시계획 추진



[ 6-2생활권(대상지) 조감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서면 위주로 실시되었던 과거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을 적용한 가상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후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자주도형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새로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생활권별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홈페이지 게시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조감도나 도면, 설명서 등의 서면자료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2023년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도시계획을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한 2.5D의 가상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캐릭터(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 메타버스 : 현실과 동일한 공간을 가상공간에 구축하고, 아바타(Avatar)를 통해 현실과 동일한 경험을 가상공간에서 실현

체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시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지는 2022년 6월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6-2생활권이며,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구축완료 시점은 9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상공간에는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구축될 것이며, 행복청은 해당 공간을 통해 제시되는 시민 제안 중 타당성이 높은 제안들은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가상 공간을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수요자가 체험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쉽고 가까운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 역세권? 이제는 ‘공세권’! 행복도시 공원, 삶의 질 ‘끌어올려~!’

- 세계 첫손 꼽히는 ‘공원 속 도시’ 조성 목표
- 숲과 물을 품에 안은 ‘블루그린 네트워크’
- 자연 속 여가와 휴식으로 스트레스 말끔하게



사람들이 거주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파트 실거래 통계나 가격동향 그리고 각종 부동산 플랫폼의 선호입지여건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 전통의 ‘역세권’을 제치고 최근에 뜨고 있는 것이 바로 ‘공세권’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쾌적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과 공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따져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공원은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여가와 치유, 쉼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공원도시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입니다. 보통 행정도시라는 딱딱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행복도시는 전체면적의 52.6%인 약 3,840만㎡가 공원과 녹지, 친수공간으로 채워져 있을 만큼 자연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뛰놀기 좋은 도시, 산책하기 좋은 도시’라는 주민들의 호평 속에 ‘도시 속의 공원이 아닌, 공원 속의 도시’를 목표로 조성이 한창입니다.

행복도시에는 랜드마크격인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모두 266개소의 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말 기준 19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풍부하게 채웠습니다. 세종중앙공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족여가숲,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과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12절기 주제의 어울림정원, 그 외 가족예술클럽, 도시축제마당 등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합니다. 공원 내 전망대에 오르면 사방으로 탁 트인 도시 전경이 펼쳐지고, 일몰 후에는 눈부신 야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세종중앙공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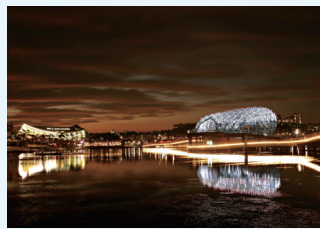
세종중앙공원(체육시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둘레를 1,446m로 만든 금강보행교 이응다리는 위층이 보행자, 아래층이 자전거 전용인 복층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보행로에는 정원, 공연장, AR 망원경, 물놀이시설, 분수대, 레이저조명 등 걷다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축천 수변공원도 시민들의 산책과 여가활동의 명소로 꼽힙니다. 방축천 10교~16교 사이 약 1km에 수변식물테마공원, 세종광장, 자연생태학습 등 5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하천공원이 색다른 휴식과 놀이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전경



세종호수공원 야경

### 바쁜 도시민들의 ‘일상 속 힐링공간, 공원’

행복도시는 고리처럼 동그랗게 생긴 구조로, 중심부로 다가가면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원수산과 전월산이 이어지고, 20개 코스 총 208.4km의 친환경 둘레길이 각 생활권의 공원과 광장, 녹지 등과 연계됩니다.

행복도시는 ‘매일 색다른 동네 한 바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습지섬, 물꽃섬, 수상무대섬 등 5개 주요 테마 섬으로 구성된 세종호수공원은 소풍숲, 야생초화원, 수변전통정원을 비롯해 소나무길, 벚나무길, 이팝나무길 등 주제별 산책길로 수변공간을



방축천 수변공원



## 바로 당신 곁 사계절 행복공간, ‘근린공원’

일견 고층아파트들이 뻥뻥이 들어선 ‘빌딩 숲’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복도시 사이사이로 크고 작은 공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생활 가까이 자리한 자연이 치열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의 건강과 휴양을 돕습니다. 특히 행복도시는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공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주목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 근린공원인 다정동의 ‘품안뜰 공원’은 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남녀노소가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에는 바닥수가 가동되어 아이들의 물놀이와 어른들의 피서지로 인근 주민뿐 아니라 멀리서도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고운동 한가운데에 위치한 ‘고운동 근린공원’은 기존 산책로와 데크길로 조성된 둘레길, 거대한 UFO 미끄럼틀과 모래판 등이 마련되어 있어 자연을 가까이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두의 놀이터’로 시민들의 생활에 자리 잡았습니다.



쑤바람 수변공원(장미원)



쑤바람 수변공원(소나기정원)

한편, 우리 나라꽃 무궁화를 주제로 한 ‘무궁화공원’은 다양한 색깔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무궁화색채원, 전국 300여종의 품종을 모아 놓은 무궁화품종원 등을 갖추고 있어 무궁화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화를 만날 수 있는 세계국화원과 여러 수목이 미로처럼 식재되어 있는 조형미로원, 무궁화 휴게정원 등이 공원을 즐기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의 성장공간

평균 연령이 35.4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고 출산을 또한 최고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각종 공원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자연을 체험하고 놀이를 통해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유아시설이 특히 많습니다.



보람동 땀범벅놀이터



고운동 근린공원(모두의 놀이터)

보람동 땀범벅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설계과정에 참여해 디자인했으며, 7,400㎡에 달하는 규모는 축구장 1개 크기에 필적합니다. 둔덕놀이원, 로프놀이원, 잠라인 등 다채로운 놀이시설로 어린이들이 활동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 아이는 물론 부모세대의 호응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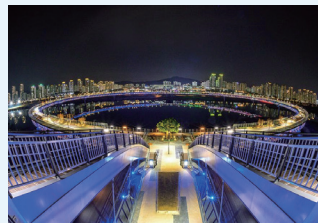
유아숲체험원으로는 원수산 파랑새 유아숲체험원,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 괴화산 큰마루 유아숲체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2만㎡ 규모의 원수산 파랑새 유아숲체험원은 생태놀이장, 숲체험장, 목공놀이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도 숲속교실, 모래놀이터, 낙엽놀이대 등을 통해 숲을 교과서로 삼고 배움으로서 놀이를 실현합니다. 괴화산 안에 자리한 큰마루 유아숲체험원 역시 천연 놀이터로서 로프와 통나무모험대, 나무블럭 쌓기 등 곳곳에 설치된 신기한 체험시설들을 즐기며 어린이의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금강을 따라 조성된 쑤바람 수변공원은 장미원을 비롯해 다양한 어린이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형형색색 만개한 장미를, 여름에는 들판 가득한 야생화를, 또 가을과 겨울에는 코스모스, 물억새와 갈대를 만나 사계절 특별한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수, 여름철 물놀이를 위한 의자분수, 아이들이 직접 폐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풍력장치와 모노레일 등 자가발전 놀이터가 있어 오감을 적극 활용한 다채로운 방법으로 공원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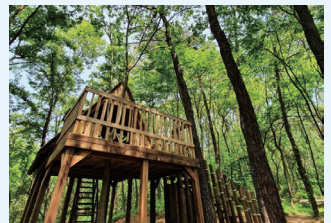
## 행복도시의 또 하나의 꿈, 세계적인 ‘공원 속 도시’

행복도시는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시작된 역사적 사업인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와 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또 제시해왔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도심 속 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라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유아와 어린이 특화공원, 스토리가 있는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원 속 도시를 만들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공원은 도시민이 자연 속 건강과 휴식, 여가와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그만큼 집 근처 공원의 유무와 시설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행복청이 앞으로 주민의 희망을 얼마만큼 담아내어 포부와 같이 세계적 공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강보행교 이음다리 야경



괴화산 큰마루 유아숲체험원

## 세계로 뻗는 행복도시 건설 역량... 이집트·몽골도 동반 협력

###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협력 본격화 몽골 오르온벨라쿠상벨리 개발 참여 모색 'K-행정도시 모델 수출' 새로운 영역 개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주목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 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국내외 관심을 증폭시킨바 있습니다. 특히 신수도를 조성하거나 이전을 계획 중인 국가들의 협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행복도시를 건설하며 축적된 지식과 기술적 역량이 자국의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도시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이에 적극 응하여 'k-행정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 협력 넘어 새로운 국제교류와 시장개척 물고 기대

현재 행복도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2019년 11월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등 수개 국입니다. 이집트, 몽골과는 작년부터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에는 카심 마잘리와(Kassim Majaliwa) 탄자니아 총리가 직접 행복도시를 찾아 도시 구상단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두루 살펴보고, 관계자 설명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행복도시를 방문한 외국 고위급 인사는 상당수에 이릅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성공비결을 배우려는 각국 대표들을 세심하게 영접하며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 효과를 높여 왔습니다. 작년 6월에는 행복도시 영문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여 외국인의 시선에서 도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원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것은 국제교류의 지평이 더욱 넓어짐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도 되고 있어 민관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행복청-이집트 ACUD, '행정수도' 건설협력 위해 '맞손'



지난해 12월 28일 행복청과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공사(ACUD)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날 서명은 행복청장과 이집트 ACUD 사장간에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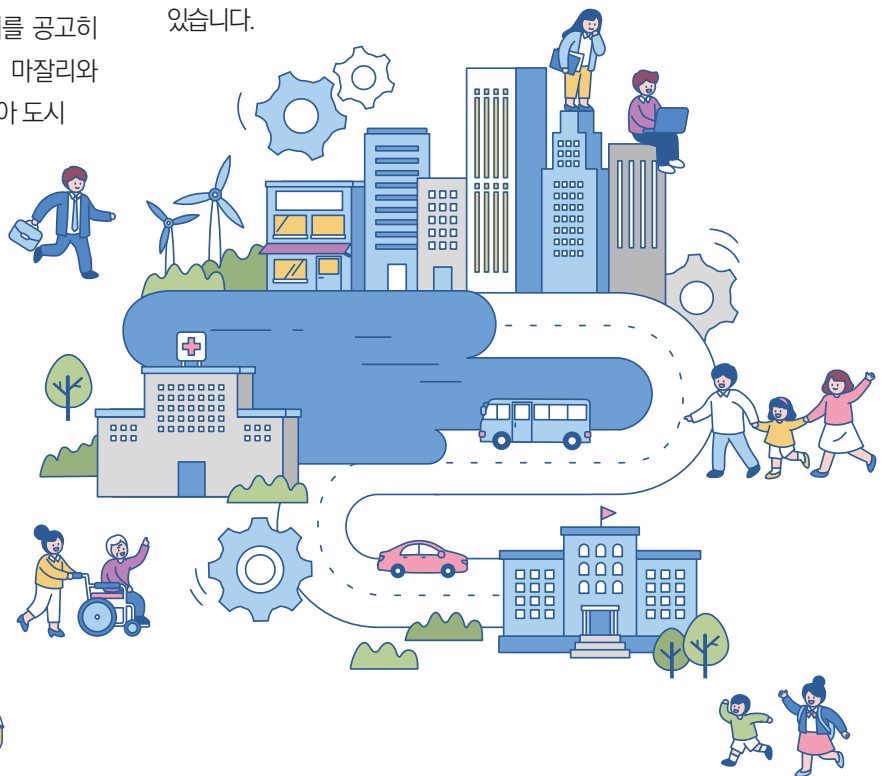


이집트는 수도 카이로의 과밀화 해결과 새로운 국가성장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카이로 동쪽 약 45km 지역에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650만 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집트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와 투자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경험을 심분 활용하여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 도시운영 등'에 걸쳐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행복청과 이집트 ACUD는 금년 4월 4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대강당에서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도시 건설 경험과 지식을 이집트와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 건설 사업 진출 기회를 마련하려는 자리였습니다.

## 몽골과도 행정도시 건설 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상생발전 '시동'

몽골과도 행정도시 건설 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상생발전 '시동'  
올해 2월 15일에는 몽골과 '도시건설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양국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행복청장과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이 서명했으며, 몽골과의 협력은 작년 2월과 5월,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이 어용에르덴(Oyun-Erdene) 몽골 총리 지시로 행복청을 방문하면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르혼밸리와 쿠싱밸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행복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였습니다.

몽골은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160만 명 이상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러한 문제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과 함께 행정기능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오르혼밸리 개발은 울란바토르 서쪽 360km 지점에 위치한 중세 몽골제국의 수도 카라코룸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쿠싱밸리는 울란바토르에서 50km 떨어진 위성도시로, 배후에 위치한 칭기즈칸 국제공항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약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9일, 울란바토르시청 도시개발국장 등 일행이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건설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스마트시티 조성사례와 노하우 등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앞으로 한국의 행복도시 건설 경험이 자국의 행정도시 개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세계로 뻗는 '건설 한류', 국내기업 해외수주 지원까지

행복청은 향후 국내 및 현지 민간으로 구성된 이집트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현지동향 파악 및 시장 모니터링, 협력사업 모색 등 다각적 활동을 위해서이며, 우리 기업의 몽골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협력국 공무원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과의 스킨십 확대를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도 계획 중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집트, 몽골 외에도 행정수도 건설과 행정도시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정책수출과 확산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 중"이라며 "국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행복도시의 어느덧 'k-행정도시' 모델 수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그동안 쌓아온 행정도시 건설 경험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건설지식을 모듈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협력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k-행정도시'로 세계에 또 한 번 일으키는 건설 한류의 바람이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3. 7. 11 ~ 10. 10.**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기능과 심미 '일석이조'의 비결

김흥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현대 건축의 선두주자인 노먼 포스터는 “건축은 가치의 표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건축이란 단순히 기능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건축물은 유형, 무형의 자산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그 자취를 남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건축 계획 및 조성을 통해 사회문화적 재화로서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 서왔다.

행복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는 정부세종청사,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 기록관 등이 꼽힌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조선시대 성곽을 돌며 성 안팎을 둘러보는 ‘순성놀이’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으며, 전통과 현대건축의 융합으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곳은 15개의 청사건물을 하나로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3.6km)으로 2016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감성 도서관(Emotion Library)’을 콘셉트로 한 국립세종도서관은 ‘책을 펼쳐놓은 형태’와 ‘데이터가 전송되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소통과 감성까지도 담아냈다. 또 국내 최초 대통령 기록물 전용시설인 대통령기록관은 국새보관함을 모티브로 한 대형 유리큐브 건물로, ‘기록으로의 산책’을 테마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들은 아이코닉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한국건축문화대상 등과 같은 국내외 우수 건축상을 수상하며 그 독창적 미학과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시민들이 자부하는 행복도시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보통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기능과 효율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획일화되기 쉽고 때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행복도시 공공건축물들이 기능과 심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새로운 개념의 건축모델을 적극 발굴했다는 점이다. 초기 건축

목표 설정은 향후 건립되는 건축물의 품질과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형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기획영역을 실시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이루었다. 설계공모, 설계 등 검토와 건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 및 조정 등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공공건축가의 활약으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에 인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했다는 평가다.

행복청은 또 다양한 디자인과 형식을 주제로 한 설계공모와 기술제안 입찰방식 등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은 물론,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품격 높은 도시브랜드 완성에 힘써왔다. 특히 자체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POOL)을 확대 운영하여 설계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건축동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독창적 디자인과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우수 공공건축물이 연이어 건립되었고, 국내외 유명 건축상을 수상하면서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모두 갖춘 행복도시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최근 행복청은 전국 건축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대학생 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건축가들에게 우수 공공건축물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적 영감을 부여하고, 행복도시의 비전과 방향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8월 인천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6개 대학이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복도시의 특색 있는 디자인과 신기술을 적용한 여러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해 도시 전체를 현대건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건축 양식 박물관’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행복도시 건립이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그리고 이들을 품은 ‘국가상징공간’ 등 조성이 완료되면 공공건축의 새로운 기원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가 선도하는 공공 건축의 기술과 문화가 앞으로 세계 건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믿는다.



노먼 포스터

## 노먼 포스터 약력

### 주요경력 및 학력

- 맨체스터대학교 건축학, 도시계획 학사
- 예일대학교 대학원 석사
- 영국왕립건축가협회 금상, 스텔링 상('83)
- 프리츠커상 수상('99)
- 포스터 앤 파트너스 설립
- 팀4 설립

### 대표 건축물

- 윌리스 파버 앤 뒤마 빌딩
- 홍콩 상하이 은행 본부
- 스텔스테드 공학
- 허스트 타워
- 독일 새 국회의사당

## 국내외 우수 건축상

### 아이코닉 어워드(Iconic Award)

- 독일디자인협회가 주관하며 전 세계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건축물을 발굴하여 명예를 수여하기 위한 세계적 디자인상
- (수상작) 국립세종도서관('13)

###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며 디자인계에서 걸출한 양질의 작품의 명예를 수여하기 위한 세계적 디자인상
- (수상작) 국립세종도서관('14)

### 한국건축문화대상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변화하는 건축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건축물과 신진 등용의 장으로 건축의 미래를 열기 위한 국내 건축상
- (수상작) 대통령기록관('16)







# 행복도시에서 어울링을 타고 달려봐요!



어울링은 하루에 3,300건이 넘는 많은 이용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퇴근용으로 애용되고 있답니다!  
출퇴근 뿐만 아니라, 레저용으로도 좋겠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는 행복도시에서 어울링을 타고 달려보아요!

## '어울링'이 뭐예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어울링'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자전거입니다.



대중교통중심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행복도시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이용 방법이 궁금해요!

어울링은 어플과 QR코드를 이용하여 대여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시간만 잘 지켜주세요.



자물쇠 없이 잠금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굉장히 편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어울링 색깔, 무슨 차이인가요?

금 액	일일권 1,000원 (회원할인 가능) / 1년 회원권 3만원		
컬 러			
	어울링	뉴어울링 하늘색	뉴어울링 파란색
대여방법	무인대여 (단말기)	전용 앱 설치 후 QR코드	
무 게	22kg	17kg	16-17kg
기 어	7단	3단	7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시설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대여소는  
무려 600여개! 운영되는 공공자전거는  
3,000여대라고 해요. 그 이외에도  
건축물 별로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참 좋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이와 한글교시(8교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 알쏭달쏭

- '늘'과 '늘상'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그 시간에 늘 마중나오던 사람(O)  
 - 그 시간에 늘상 마중나오던 사람(X)

- '짓거리'와 '짓꺼리'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어리석은 짓거리였다(O)  
 - 어리석은 짓꺼리였다(X)

## 숙제 코너

사자성어 배워가기

유 구 무 언

(有) (口) (無) (言)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

- ① '뵈요'와 '뵈요'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우리는 그럼 내일 뵈요( )      - 우리는 그럼 내일 뵈요( )

- ② '사겨'와 '사귀어'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너희 둘이 사겨?( )      - 너희 둘이 사귀어?( )

## \* 7교시 숙제 코너 정답

1번: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2번: 거드랑이가 '결땀'으로  
젖었다

## 행복청의 일상은?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아래의 사진은 행복도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공유자전거 **○○○**입니다.

**○○○**은 행복도시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서 쉽게 대여하고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세대교류를 통한 서로 돌봄의 가치, 행복도시형 공동체 조성 '순항 중'

2021년 완성 해밀동 '복합커뮤니티단지' 성공에 힘입어  
2027년 입주 목표 다솜동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탄력  
생애주기는 물론 모든 세대 포용하는 '뉴타입 공동체'에 쏠리는 관심



맹자가 쓴 '공손추'에는 “하늘이 준 좋은 운은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은 사람 간 화합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춘추전국시대,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조차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연대와 일치단결의 힘을 중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살린 '소통과 나눔'의 마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다솜동 5-2생활권에 들어섭니다. 이는 기존 해밀동 6-4생활권에 공공시설과 교육시설을 융합한 복합커뮤니티단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특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 취지는 0세부터 100세까지, 한 사람의 생애주기는 물론 전 세대 간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의 장(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구절벽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주민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평생 계속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Aging in Place)이 목적입니다.

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4월 통합설계공모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공공청사와 교육시설, 공원과 도로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부문은 연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복합커뮤니티단지', 학교와 공공시설이 한 데 모여 마당과 길로 통하다

그간에도 행복청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및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집적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주요 생활권별로 건립하여 주민 편의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구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해밀동에 조성된 '복합커뮤니티단지'는 이러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과 광장, 공원 등을 더한 이른바 '확장형' 복합단지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6-4생활권 중심에 공공시설과 학교, 그 외 부대시설을 복합화는 통합설계 방식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전체 시설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단지 내 단차조정으로 시설물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소규모로 분산된 문화와 체육공간을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규모를 늘리고 활용도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후문입니다.

이곳 단지는 전체가 녹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숲으로, 대부분의 건물과 공간 사이가 순환하는 마당과 길로 이어집니다.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은 이 길을 산책로로 이용하며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숲속의 숲'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공시설 통합설계를 통해 실험적으로 조성된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의 성공은 작년 3월 행복청이 단지 이용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학생들은 운동장 등 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다수 주민들은 다양한 시설들이 주거지와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하다며 단지 전체를 '하나의 마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5월 행복청이 개최한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현장에서 가진 주민 인터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네 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이지수 씨(42세)는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시설, 초중고가 한 곳에 모여 육아 대부분이 한 동네에서 완결될 수 있다”라며, “특히 아이의 하원과 하교를 기다리면서 여유시간에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학부모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도 만들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해밀동 복합커뮤니티 단지의 장점을 꼽았습니다. 8년 전 서울에서 이주해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송상희 씨(51세)도 “살아볼수록 어린이와 노인,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다. 아이 키우기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 '공공시설복합단지', 나이가 들어서도 내 집과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편, 이번에 다솜동 5-2생활권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복합단지는 공공청사, 학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은 물론,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통합설계가 추진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거시설까지 같이 통합설계하는 것은 중북 분산된 생활기반시설의 기능을 수요자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 간 조화로운 배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또 계속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지는 특히 학교 도서관 및 다목적홀,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공원과 운동장 등 각종 시설의 공유와 공동 이용을 통해 학생과 주민을 아우르는 세대 간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 이들 공공시설은 주택단지 내 마련된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등 같은 돌봄시설과도 연계 배치되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달 20일 공공시설 부문 통합설계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라이프 플랫폼'을 통

해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거주민과 함께 자라나고 변화하는 마을(Life Platform)을 주제로, 0세부터 100세까지 서로 돌보며 소통하는 '함께 나이 들기(Time Platform)', 물과 숲, 공원의 풍경 속에서 자연을 존중하며 배우는 '자연과 더불어 변화하기(Nature Platform)', 마지막으로 동네 안팎으로 이어진 둘레길, 마당길, 사잇길 등 볼거리 풍부하고 보행자에 안전한 '언제나 활기를 띠는 걷고 싶은 마을(Walkability Platform)'을 주요 콘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생애주기별 대응 가능한 여러 세대평면을 도입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행복청은 특히 가변성과 내구성, 수리용이성을 갖춘 장수명주택 시범단지 조성을 통해 100세 시대에 대응하는 이른바 '100세 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공급방식에 따라 공모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은 부문별 설계지침 준수를 위한 것으로, 7월 공공시설 부문 당선작이 결정된 만큼 향후 이에 적합한 주거부문 재공고와 응모 신청 등 절차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주민화합과 생활편의를 중심으로, '개인이 고독한' 시대에 '함께 행복함' 공동체 형성에 더욱 심혈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팀코리아 중심의 선제적 사업 아이템 발굴, 민간기업의 인니 맞춤형 사업화 구상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또, 행복청이 17년에 이르는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보유한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수자원 관리, 도시운영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 기술과 노하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도 모색 중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하나 둘 결실을 맺으면 인니 신수도 건설의 본격적인 발주에 맞춰 인프라·주택·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기업 진출의 진정한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 통합공모 공공시설부문 당선작

시작되고 변화하는 삶의 터전,  
공유와 소통, 공동체 삶을 담아내는 곳



거주민과 함께 자라나고 변화하는 마을,  
성장하는 토양이 되는 기반,  
"LIFE PLATFORM"





**VISIT KOREA YEAR 2023-2024**

# KOREA SUMMER BEAUTY SALE

2023.07.20(Thu) - 08.20(Su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KC VISIT KOREA COMMITTEE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 및 태풍(폭풍) 전**

**산과 가까이 있는 주택(건물) 배수시설 점검하기**

· 위험요인 발견 시 거주지 시·군 구청 및 행정안전부에 신고함



**집중호우 및 태풍(폭풍) 시**

**기상정보 및 대피장소 확인하기 산 주변에서 야외활동 하지 않기**

· 산사태 예방에 적극 동참하기  
- 산사태 정보시스템 산사태 확인앱  
- 산사태 대피소 찾기(www.makro.go.kr)  
- 산사태 예방 앱(www.makro.go.kr)  
- 산사태 예방 앱(www.makro.go.kr)



**대피령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산에서는**

**산사태 방향과 떨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기**



**야경(캠핑) 중에는**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기**



**주택(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산과 멀리 있는 가장 높은 층 밖으로 대피하기**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 대차 이동 중에는 산사태, 가뭄,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음




**산사태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산림재해' 앱에서 확인하세요.**

스마트산림재해 산림청

다운로드





**DRAW YOUR DREAM**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5th World Scout Jamboree  
2023.8.1-12 SaeManGeum, Jeollabuk-do, KOREA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 2023 SaeManGeum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kakao OURHOME BPL TIERRA NH농협은행



**행정안전부**

**2023. 8. 23.(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 발령 - 주민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

**대피소 SHELTER**

오후 2시부터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여 대피소 내 교육이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고,

통제되는 일부구간에서 운전중인 차량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주세요

주민과 차량은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이 가능합니다!

**오후 2시20분 경보해제 후 일상활동 복귀**